

최호성 "PGA 초청 영광 ... 간절했다. 최선 다할 것"

'낙시꾼 스윙'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최호성(46, 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로부터 초청받았고 "영광 그 자체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1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최호성은 전날 PGA 투어 AT&T 프로암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특별 초청으로 받았다.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이 대회조직위는 최호성에게 직접 연락해 대회 초청장을 보냈다.

14일 현재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최호성은 "PGA 투어 초청 소식은 13일 들었다."면서 "영광 그 자체이고 항상 하던 대로 간절함을 담아 최선을 다했던 게 지금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실천할 것이고 미국에 가서도 골프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경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2004년 KPGA 코리아투어로 데뷔해 한국과 일본에서 프로 생활을 해온 최호성이 PGA 투어에 출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호성은 한국에서 2승,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도 2승을 추가해 통산 4승을 올렸다.



스티브 존슨 몬터레이 페닌슐라 재단 CEO 겸 대회 운영위원장은 "낙시꾼 스윙(fisherman swing)을 미국 팬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서 설렌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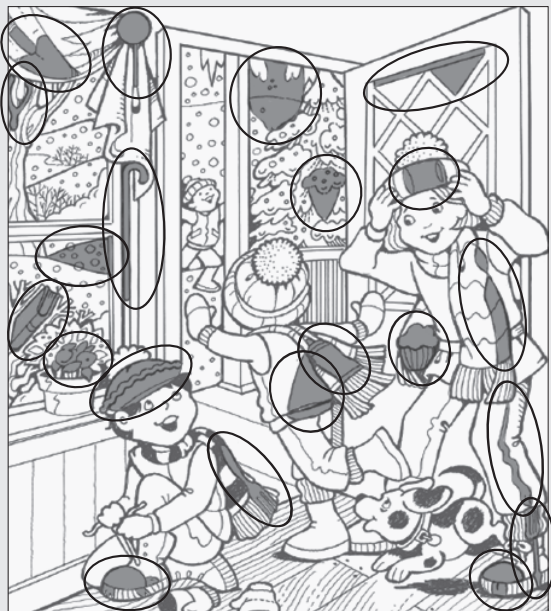
AT&T 페블비치는 독특한 대회 방식으로 치러진다. 프로들만 출전해 우승 경쟁을 다투는 일반 대회와 달리 유명인사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그리고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이 함께 출전하는 프로암(Pro-Am)으로 진행된다. 연주가 케니 지와 영화배우 케빈 코스트너, 전 NBA 스타 찰스 바클리 등이 대회 단골손님이다.

최호성은 지난해 6월 한국오픈에 출전 중 몸을 비틀면서 한쪽 다리를 꼬아 올리고, 손을 하늘 높이 번쩍 들어 올리는 등 독특한 스윙을 해 주목을 받았다. 한국오픈은 아시안투어와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당시 최호성의 스윙 장면이 아시아 국가에 방송돼 더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번졌다.

당시 세계랭킹 1위였던 저스틴 토머스는 자신의 SNS에 "나도 스윙을 따라해 보겠다."고 올려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최호성이 JGTO 투어 카시오 월드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다. 이후 미국 골프다이제스트 등이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최호성을 PGA 투어로 초청해야 한다."는 등의 보도를 잇달아 내면서 미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2월 열리는 피닉스오픈에 초청해야 한다는 청원도 이어졌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 숨은그림찾기 문제는 P31에 있습니다.

"류현진, 내년 FA 랭킹 36위 ... LAD 잔류할 것"

류현진(32·LA 다저스)이 2019-2020 메이저리그 자유계약선수(FA) 랭킹에서 36위에 올랐다. 예상 행선지로는 현 소속팀 LA 다저스가 손꼽혔다.

'스포티비뉴스'는 15일 'CBS스포츠'가 이날 발표한 내년 FA 시장을 총망라한 'TOP 50' 랭킹을 소개했다. 이 랭킹에서 류현진은 36위였다. 평가 매체별로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올해 류현진의 FA 랭킹 위치는 10위권 중·후반에서 20위권 초반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다소 떨어진 셈이다.

아무래도 2018-2019 FA 시장보다는 더 많은 대어들이 시장에 나온다. 선발투수는 더 그렇다. 또한 'CBS스포츠'는 류현진의 건강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다.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순위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시장 상황과 부상 문제임을 유추

할 수 있다.

'CBS스포츠'는 류현진에 대해 "건강할 때가 많지 않은 선수다. 매 시즌 결장 기간을 예상해야 하는 유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본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다. 'CBS스포츠'는 "핫스윙을 이끌 수 있고, 잘 맞은 타구를 피할 수 있으며 큰 경기에 강하다는 평판을 가진 이 좌완은 우승 도전팀의 로테이션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칭찬했다.

미리 보는 예상 행선지는 다저스였다. 'CBS스포츠'는 "류현진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부상 경력은 그의 예상 수입을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이다."고 했다. 능력을 떠나 부상 때문에 대형 계약은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본 것이다. 다만 "다저스와 서로 잘 어울린다."면서 팀 내 신뢰는 무난하게 얻을 것이라 전망했다.



BRE #02036043

714-822-0345

3030 Old Ranch Pkwy. #400
Seal Beach, CA 90740
yeetakre@gmail.com



Yee Tak (탁 이석)

Economics and Certificate in Quality Analysis at Arizona State
건국대 경영학과

주택 / 커머셜 / 인듀스트리얼 - 1031 Exchange

부동산에 대한 모든것! 500명 이상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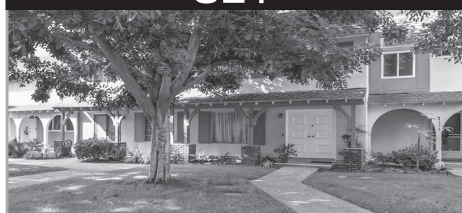
정확한 통계 분석과 네고를 통한 최고의 가격 판매와 최저가 구매

Corona Downtown



Liquor + Building
Liquor \$190,000 + Building \$760,000
+ Inventory = 총 \$95만 + Inventory
리커 매상 4만 닷 1만.
체크싱(볼륨 1M) + 로또 = 닷 1만
총 닷 1만 5천. 인벤토리 약 3만. SBA융자 가능.

Cypress 뱅크우드



방 4-화 2 1,564sq
최고의 학군중의 하나인 사이프레스 학군
업그레이드된 밝고 넓은 부엌
\$539,900

실비치 레저월드 55+



방 2-화 1 900 Sq
다양한 편의 시설
편리한 교통을 갖춘 최고의 시니어 단지중 하나인
실비치 레저월드입니다.
\$228,900